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주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하늘에 속한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서 교회생활을 실행함

성경: 히 8:2, 6, 2:10-12, 1:9, 3:6, 4:9, 7:22, 9:15, 12:22-24, 28, 13:1-19

- I.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시다 — 히 8:2.
- A. (하늘에 속한)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장소일 뿐 아니라 생명의 상태인) 하늘을 우리 속으로 공급하신다.
 - B. 지금 우리의 사역자로서 하늘들에 계신 현재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축하고 계신다 — 히 1:3, 4:14, 7:26, 9:24.
 - C.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 히 8:2.
 - 1. 거룩한 처소인 이 장막은 셋째 하늘에 있으며, 셋째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가 있다.
 -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곳인 하늘에 속한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다 — 히 4:12.
 - 3. 하늘들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필요를 돌본다 — 히 4:15.
 - a. 하늘들로부터 그리스도는 음식,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 b. 우리의 사역자는 우리의 필요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 엡 1:10.
 - D.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수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
 - 1.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은 하늘들에서 주님이시자, 우리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 행 2:36, 롬 8:11.
 - 2.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분이신 그분의 모든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 히 1:3, 9:24, 12:2.
 - 3.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우리를 부축하신다.
 - E.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유산들, 곧 새 유언의 축복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신다 — 히 7:22, 8:6, 9:15.
 - 1.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 히 7:22.
 - a. 그분은 새 언약의 사실들을 효력 있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 b.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실은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에 의해 효력 있게 된다 — 히 9:15, 8:6.
 - 2. 새 언약에 포함된 사실은 어떤 것이든 새 유언에 포함된 유산이다.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새 유언에 포함된 유산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 히 9:15-17, 10:16-18.

II. 히브리서에는 교회의 다양한 방면이 계시되어 있다.

- A.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된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구성체이다 — 히 2:10-12, 롬 8:29, 요 20:17, 히 1:5, 5:5, 행 13:33, 벧전 1:3.
1. 하나님은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신성한 아들들이다 — 요 20:17, 엡 1:5, 갈 3:26, 요 1:12-13, 벧후 1:4.
 2.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만아들과 똑같다. 그분은 신성하시면서 인간적이시고, 우리는 인간적이면서 신성하다 — 히 2:11, 1:6, 롬 8:29.
 3. 교회는 두 생명과 두 본성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한 유기체이다 — 레 2:1-16.
 - a. 교회는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 곧 신성한 생명과 높여지고 부활한 인간 생명의 문제이다 — 롬 1:3-4.
 - b. 교회는 두 본성, 곧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이며 동시에 신성하다 — 히 2:14, 11.
- B. 교회는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다 — 히 3:14, 1:9.
1.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운행하시는 목표는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 히 2:10, 요 17:1, 5, 22, 24, 계 21:10-11.
 2. 만아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상속자이시고,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구원을 받아 공동 상속자들이 되어, 구원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 히 1:14, 롬 8:17, 갈 4:7, 엡 3:6, 딤후 3:7.
 3.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의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들이다 — 히 1:9, 3:14.
 4.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분의 운행하심에 협력하여, 신성한 존재의 영광스러운 표현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한다 — 히 1:9, 고후 1:21, 계 21:10-11.
- C.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는 안식일의 안식이다 — 요 2:19, 21, 3:29상, 30, 고전 12:12, 히 3:6, 4:9.
1.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시고(마 11:28-29),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이다.
 2.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기 때문이다 — 엡 2:22.
- D. 교회에 오는 것은 새 언약과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다 — 히 12:22-24, 8:7-13, 11:10, 16, 갈 4:24-26.
1. 새 언약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교회는 하나이다.
 2. 새 언약을 받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다.
 - a. 히브리서 8장은 율법의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음을 말해 준다.
 - b.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과 새 언약의 중보자와 교회에 나아왔다고 말한다 — 히 12:22-24.
- E. 교회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다 — 히 12:28.

1.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확대이다.
 - a. 왕국은 사실상 우리 안에 왕국으로서 계신 주님 자신이다 — 눅 17:20-21, 막 4:3, 26.
 - b.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인 반면, 왕국은 행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2.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 요 3:3, 5, 롬 14:17, 계 1:9.

III.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덕들과 체험들에 대해 말한다.

- A. 히브리서 13장은 그 내용이 보여 주듯이, 합당한 교회생활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형제 사랑이나 접대와 같이 여기에 언급된 거의 모든 것이 다만 그리스도인의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위한 것이다 — 히 13:1-7, 16-18.
- B. 참되고 꾸준한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며,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 히 13:8-9.
- C.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 히 13:12-14.
- D.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고 종교 밖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 히 13:15.
 1.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2. 교회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신다(히 2:12).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한다.
 3. 결국 교회 안에서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영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한다 — 히 2:12, 13:15.
 - a.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 b. 이것이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높은 희생 제물이다.
 - c. 이것이 교회 집회에서 크게 필요한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늘에 속한) 참장막의 사역자

히브리서 8장 2절은 “그분(승천하신 그리스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하늘에 속한)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장소일 뿐 아니라 생명의 상태인) 하늘을 우리 속으로 공급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 장막, 이 거룩한 처소는 셋째 하늘에 있고, 이 셋째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연결된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하늘들로부터 그리스도는 음식,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우리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수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나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된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우리의 영 사이에는 계속적인 전달이 있으며, 그 결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즉시 이곳에서도 적용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승천한 분이신 그분의 모든 직무들 안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부축하신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참장막의 사역자로서 새 유언의 유산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심

마지막으로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참장막, 하늘에 속한 장막의 사역자로서 새 유언의 유산들, 곧 새 유언의 축복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신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새 언약의 사실들을 효력 있게 하심으로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실은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에 의해 효력 있게 된다.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새 유언 안의 유산들을 집행하고 계신다. 언약 안의 사실은 모두 유언 안의 유산들이다. 사실이란 성취된 어떤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들이 유증될 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사실들은 성취된 후에 유증되며 그것들은 즉시 우리를 위한 유산으로 지정된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인 반면에 유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산이다. 언약 안의 사실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유언 안에서 유산들로 우리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정되었다. 새 유언 안에서 이제 유산들이 된 새 언약의 네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곧 불의에 대한 화해와 죄들의 용서, 생명의 법을 넣어 줌,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 주님을 아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지금 이 유산들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많은 변화를 겪으셨다. 즉 그분은 많은 과정을 통과하셨다.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 사람의 아들은 아니셨다. 그분은 인성, 곧 육체가 없으셨다. 그러나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변화를 겪으시어 인성을 취하시고 직접 육체를 입으셨다(요 1:1, 14).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셨다. 이처럼 그분은 이전에는 아니셨던 어떤 것으로,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바뀌셨다(고전 15:45).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영원 과거에서부터 시간을 거쳐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채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분은 여러 과정을 거치심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셨다. 그분은 여러 과정을 통과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을 포함하신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이시고, 그들이 살아 냈던 생명이시며, 그들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시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영존하시고 변하실 수 없으며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다(히 1:11-12).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예수가 없고, 전파되는 또 다른 복음이 없다(고후 11:4, 갈 1:8-9). 참되고 꾸준한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며, 이런저런 다른 가르침들로 빛나가서는 안 된다(히 13:9).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감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감시다.”라고 말한다. 12절에서 말한 성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땅에 속한 영역을 상징한다. 반면에 13절에서 말한 진영은 장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간 조식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한 가지를 상징하는데, 바로 땅에 속한 방면과 인간적인 방면, 이렇게 두 방면을 가진 유대 종교이다. 유대교는 땅에 속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문, 곧 정치적인 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종교적인 진영 밖으로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난받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십자가의 거룩하게 하는 길에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특별한 방면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반드시 ‘휘장 안에’(히 6:19-20) 곧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늘에 속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10:19-20).

‘진영 밖으로’와 ‘휘장 안에’(히 13:13, 6:19)는 히브리서에 있는 두 가지 매우 두드러진 요점이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여 쫓아낸 종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체험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성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오늘날 실질적인 진영이 있는 종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더욱더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더욱더 머물며 영광 안에 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서,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며 그런 다음 어떻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곧 진영 밖으로, 종교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심지어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출 32장) 진영 밖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모세를 만나려고 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하심이 모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출 33:7-11). 우리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종교의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합당한 교회생활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시다. 곧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몫이시다.

우리의 뭇이신 그분을 누리는 길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다른 면에서는 진영 밖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뭇이신 그분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 그분을 누리는 길은 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조직화된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을 충만히 누리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영 밖으로 나갈 것이며 조직화된 종교를 더 많이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짊어지신 동일한 비난을 짊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마 16:24). 우리는 멸시를 받을수록 더욱더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겪으신 비난이 이제 우리의 비난이 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비난을 짊어지고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계 1:9).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뭇이신 그분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좁은 길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셔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한 면에서 우리는 회장 안에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성, 곧 진영 밖에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있다. 내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아침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이것은 솔라미와 솔로몬이 상아 궁에서 함께 살고 교통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시 45:8, 아 1:4). 우리는 내실에서, 지성소에서, 비밀한 장소에서 주님을 접촉한다. 우리가 외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일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여행한 아비가일에 비유될 수 있다(삼상 25:39-42).

매일 우리는 이 두 방면을 체험한다. 한 면에서 우리는 솔라미로서 회장 안에 있다. 즉 지성소 안에 살면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마 12:42)이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아비가일로서 진영 밖에 있다. 즉 세상에 살면서 겸비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마 12:3). 솔라미처럼 우리는 내적으로 상아 궁에 머물면서 참된 솔로몬이신 주님과 교통하며,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외적으로 참된 다윗이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살고 일하며, 전쟁하고 고난을 겪는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반면에 우리 밖에 계신 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내적으로 우리는 비밀한 곳에서 솔라미의 누림을 갖고, 외적으로 우리는 아비가일의 공개된 생활을 갖는다.

우리는 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외적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증언할 때 우리의 동료와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할지 모른다. 그러한 때 외적으로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편에서는 먼저 고난을 체험하시고 나서 부활을 체험하셨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먼저 부활을 접촉하고 그런 후에 고난을 체험한다. 그분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한 후에 죽는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다. 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접촉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에 받아들인 후에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회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본다. 이럴 때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이 땅과 그것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가 휘장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땅에 속한 누림으로 점유된 데서 자유롭게 되어 진영 밖에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휘장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분께 매혹되어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얼굴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된다.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부활 능력을 주입받아(빌 3:10) 진영 밖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여 진영 밖에 있는 목마른 영들에게 그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림으로 풍성하게 되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지성소와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비난을 짊어지는 것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길과 왕국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풍성한 공급이 있는 지성소는 우리로 하여금 좁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며, 십자가의 길은 장차 나타날 왕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광의 보상을 얻게 한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심오한 사상을 제시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난을 짊어지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자주 탄식하며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비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계속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연속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고 종교 밖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교회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신다(히 2:12).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한다. 결국 교회 안에서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영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높은 희생 제물이다. 이것은 교회 집회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집회에서 참된 찬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찬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이다. 이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경배는 그분의 아들을 드리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급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경배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찬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매우 만족시키는 찬양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로 인하여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의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요 17:1).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에서 나온 찬양,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찬양이 아버지께 드리는 최상의 찬양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에 관해 말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주는 것을 가리키고, 나누어 주는 것은 직역하면 교통하는 것인데, 함께하는 것, 즉 성도들의 필요를 놓고 교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 또한 우리

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다. 이 두 가지 역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교회 안에서 어떤 가난한 성도들이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서로 간에 교통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148-149, 685쪽, 영문판, 3837-3845쪽)*